

용산역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무주군, 29일까지 코레일유통 '고향뜨락' 용산역 매장에서 관촉행사 실시

무주군은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코레일유통(주) '고향뜨락' 용산역 매장에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관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촉전은 지난해 6월 코레일유통(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어진 행사 중 하나다.



무주군은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코레일유통(주) '고향뜨락' 용산역 매장에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관촉행사를 실시한다.

무주군은 무주반딧불유통사업단을 통해 39개 업체에서 납품받은 사과, 머무와인, 천마, 도라지청 등 196여 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용산역에 반딧불 농·특산물 시식·시음·나눔 행사 진행을 위해 반딧불 농·특산물 전문 할인매장을 운영하게 되며, 농·특산물 구매고객에게 반딧불사과를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무료배송 이벤트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코레일유통(주) '고향뜨락' 용산역 매장에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관촉행사를 실시한다.

변화되는 소비자 취향에 발맞춰 라이브커머스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25일에 진행될 행사에서는 무주군의 주력 상품인 반딧불사과(부사)와 도라지 등 가공품이 판매될 예정으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라이브 커머스(온라인 채널) 업체인 네이버 쇼핑

플랫폼을 통해 행사를 진행한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배송 이벤트, 상품 당 5천 원 할인쿠폰 발행, 구매대상 고객 전원에 게 사은품으로 사과즙과 도라지차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온라인 및 KTX 대표역 이용객들에게 우수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극대화되고 지역 기업체 및 농가에게 위탁판매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무주군청 농촌활력과 이종현 과장은 "이번 행사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 대도시 직거래 행사가 정상화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코레일유통 용산역 매장을 통한 오프라인매장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게 됐다"며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을 수도권 및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은영 무주군의의회 부의장, 관광안내표지판 관리 일원화 요구

무주군의의회 문은영 부의장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일관성을 갖추도록 일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을 요구했다.



된 표지판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부의장은 "삼공리 방송안내 표지는 문화체육과, 반디랜드는 시설관리 사업소, 머무와인터널은 농업기술센터, 태권도원은 태권도진흥재단, 국립공원 내 명칭지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설치·관리하다보니 교통표지판과 얽혀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안내 표지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관점에서 출발지부터 관광지까지의 여정을 중심으로 안내표지를 설명해 다양한

관광약자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원칙을 강화했다. 전국 행정담당자들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기획, 제작, 설치, 관리되도록 했다"며 "무주군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해 무주를 찾는 관광객의 관점에서 안내표지판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무주군은 표지판이 난립해 미관과 시야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비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문제 다양한 방법 찾아야"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맑은물사업소를 감사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많은 문제 등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하수도 사용 요금 체납액이 늘어나 징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사에 나선 위원들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목표인 유수율 85%를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는지 상세히 묻고 공사과정에서 생긴 주민불편 사항을 질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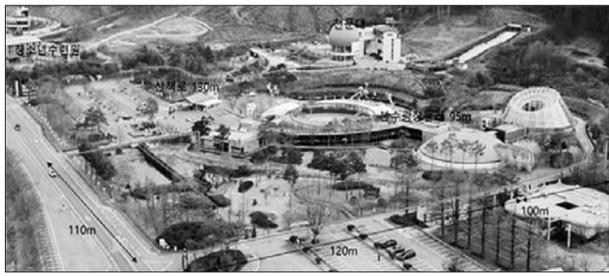
위원들은 "유수율이 지난해 보다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

지 못했으며 인근 지자체 보다 실적이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를 굴착, 관로를 매설하는 기간 내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유수율 향상이란 본래의 목적 달성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체납 상·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주나 건축주도 돼 있는 요금 고지서 발송 대상을 건물 임차인 등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임차인이 상·하수도 요금 정산을 하지 않은채 계약 만료로 상가를 비우면 건물주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맑은물사업소 김광영 소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체납 요금의 효과적 징수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 환경부의 고시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반디랜드 일원 신비로 사랑생태원 위치도.

반디랜드 일원 야간조명 설치

'신비로 사랑생태원' 조성... 보행로 중심 안전조도 확보

무주군이 설천면 반디랜드 일원에 '신비로 사랑생태원'을 조성해 야간경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13억 원(도비 3억 원, 군비 10억 원)을 들여 반디랜드 일원 수변 데크와 산책로 주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다채로운 생태체험과 친환경적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비로 사랑생태원 조성 사업은 이달 말 또는 12월 초 공사에 착수해 내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산책로와 데크 등 보행로를 중심으로 백색의 안전조도를 확보해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시키기로 했다.

특히 야간에 교량의 진·출입부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조명의 색상은 낮추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빛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주말 및 이벤트 시 다채로운 행

사가 이뤄지는 분수광장에 이미지 패턴 연출을 통한 새로운 무주의 관광자원 창출로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폭넓은 문화관광이 확대될 전망이다.

낮에도 수변을 중심으로 반딧불이 캐리터와 수변 데크가 조화로운 환경 생태공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힐링 산책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비로 사랑생태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형 관광지가 확보되면서 사시 사철 반디랜드를 찾게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지조성팀 최영길 팀장은 "반디랜드 주변에 숲과 데크가 어우러진 야간조명이 새롭게 설치되면서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체류형관광지 확보로 무주군의 관광비전 가치가 실현되고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의회이우규의원, "농공단지휴·폐업대책강구해야"

진안군의의회(의장 김광수) 이우규 의원(가 선거구)은 24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공단지 휴·폐업에 대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교부세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 군에 입주한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위기를 타개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1989년 연장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2003년 제2연장 농공단지, 2010년 홍삼한방 농공단지를 조성·분양했다.

농공단지는 2020년 말 연매출 1,447억원의 성과를 달성하며 진안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우규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인력난을 이기지 못해 휴업하거나 폐업한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

다"며 "매일제과산업과 원광전자의 사례를 토대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운영상황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까지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며 "농공단지의 휴·폐업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2022년부터 마당개 증성화 수술비 지원

장수군은 실외에서 키우는 마당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와 이로 인한 유기견 증가를 방지하고자 2022년부터 마당개 증성화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당개란 목줄에 묶어 집이나 건물 마당, 농장에 살거나, 목줄을 하지 않고 집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개를 말하며, 유기견의 상당수가 마당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마당개 증성화를 통해 의도치 않게 태어나는 생명을 최소화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장수군은 마당개 증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사업당 55마리에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마리당 40만원의 증성화 수술비용을 지원 할 계획으로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읍·면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우수마을 시상 단계별 사업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24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강당에서 2022년도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우수마을 시상과 내년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1·2단계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한 18개 마을 중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9곳이다.

1단계에서는 지난 사인동 마을이 최우수마을로 선정돼 추가사업비 200만원을 받았으며, 진안 학천3동마을, 진안 연구2동마을, 동향 호천마을, 마령 석교마을, 부귀 원두남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2단계에서는 백운 원동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으며, 진안 석곡마을과 주천 상양명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돼 마을만들기 3단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우수마을로 선정된 9개 마을의 추진사례 발표에 이어 마을만들기사업의 중요성과 마을의 현실에 대한 강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교육을 진행했으며,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2년도 마을사업 구상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